대행스님

자기가 한 발 한 발 떼어 놓는 것을 다 놔라!

잠자면서도 놓치지 않으려면

문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해 나가다 보니 어떻게 하면 평상시에도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잠자면서도 참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불현듯이 '아, 잠자면서도 내가 자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잔다고 생각하고 자면 그게 24시간 다 가동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른 깨달음인지요?

답 깨달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느꼈다 이거지, 깨달음이라는 언어는 아무 데나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자면서도 가동이 된다고 하는 건, 이 몸은 바로 내 마음의 수레이기 때문입니다. 끌고 다니는 차와 마찬가집니다. 차는 세워 놓고 주인은 나가서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듯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꿈에서도 몸뚱이는 재워 놓고 자기는 나가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니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든 차를 세워 놓고 다니든 여러분이 다니는 건 똑같습니다. 몸을 끌고 왔든 몸을 세워 놓았든 당신 마음이 다니는 거지, 육체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따라다닐 뿐입니다. 따라다니다가 마음이 쉬면 몸도 쉬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자는 시간이다' 하고 자니까 자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지 않아요. 자기 몸은 잔다 할지라도 자기, 즉 말하자면 유전자라고 할까요? 하여튼 혼백은 자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에도 잔다 안 잔다 할 게 없어요. 쉬면,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마음을 냈다 하면 법신입니다, 활용. 즉 말하자면 마음을 냈다 하면 법, 능력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다 이겁니다.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나라에서는 불이 항상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밝았다가 컴컴했다 이러질 않고, 캄캄하지도 않고 밝지도 않아요. 전깃불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켜라 꺼라 이런 언어가 없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불은 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언어를 모릅니다. '불을 켰으면 좋겠다' 해도 모릅니다. 그렇듯이 이 나의 영원한 자기, 근본적인 자기 실(實)은 참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근본은 켜졌다 꺼졌다 이러는 바도 없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일 뿐이고 기름이면 기름일 뿐이에요. 갖다 쓰는 것은 운전수가 갖다 쓰게 되죠. 기름일 뿐이지, 기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쓸 뿐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능력은, '부처님의 능력은'이라고 하는 것은 온 누리의 우주간 법계가 다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는 전부 공해서 공력이 바로 그렇게 무수하다는 얘깁니다. 쓰고 안 쓰는 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지 부처님의 능력이 없다 있다가 없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 자기를 재워 놓고 돌아다니는 그 나의 그림자의 또 그 마음의 그림자, 이것도 그림자고 그것도 그림자인데 이게 그림자의 또 그림자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서,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밤중에 다니거든. 그런데 자기가 또 만들어 가지고 낮에도 다니거든요. 이것도 자기가 형성시킨 거니까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진화돼서 창조를 시키는 것도 자기의 근본이 없으면 안 되죠. 만약에 지금 유전공학을 하는 데도 유전자가 없으면 그것은 물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도 변화를 시킬 수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크게 만들 수도 없고 작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근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즐겁다 사랑한다 하고, 종교도 이 종교 저 종교 가지고 싸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모두 불죠. 여러분 각자 내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 근본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기는 겁니다. 이 진리가 이렇게 쉴 사이 없이 돌아가듯이 여러분도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반복하는 이 생활이 그대로 진리며 그대로 참선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도 그렇게 쉬지 않고, 자지 않을 때도 쉬지 않지 않습니까. 자는 것도 참선이요 이렇게 깬 것도 참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똥 누는 것도 참선이요, 모든 게 참선 아닌 게 없는 거라. 그런데 왜 참선이 끊어집니까? 끊어지는 것은 댁의 마음이 끊어졌다고 하니깐 끊어진 거지 아니, 살림살이가 그냥 끊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끊어졌습니까, 어디?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을 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탑을 만들어 놓고 탑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탑을 만들어 놓고 탑돌이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날 탑돌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쌀 푸러 갔다 똥 누러 갔다, 그게 탑돌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돌다가 살다가 죽죠. 죽었는데 그것이 뭘로 나오든 또 돌아서 나오니, 인간의 씨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돌다 보면 항상이지, 어디 끊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이 도리를 아시란 말입니다. 이해만 하고 알기만 해서도, 이론적으로 알기만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그 자체를, 모든 것을, 일체 나쁘고 좋은 것을 다 자기 주인공에다, 공(空)에서 나온 거 공에다 놔라 하는 겁니다. 말겨 놓고 믿어라. 지켜봐라. 그러면 홀연히 '참'이라는 게 거기서 흘러서, 그 생명수의 맛이라는 것은 정말 옆의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천차만별로 그 맛이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고, 이거는 천차만별로 좋은 맛이 나는데 도대체 그 맛은 정말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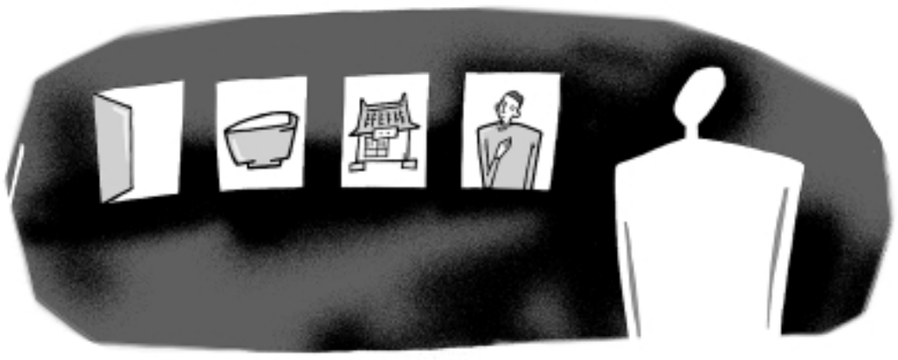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 참선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고 이렇게 도는 것도 다 참선이에요, 다! 그런데 "불경스럽게 변소에서 어떻게 부처님 생각을 합니까?" 이러거든요. 아, 자기가 변소에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저 해가 똥구덩이는 안 비칩니까? 똥구덩이라고 해가 요렇게 돌아서 깨끗한 데로만 가서 해가 비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삼재가 들었다는데…

문 저의 남편이 삼재가 들어서 집을 사도 안 되고 땅을 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어느 용하다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요?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치않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말을 따로 하는 것보다도 생활에서 돌아가는 이런 구질구질한 말들을 타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생활에서 삼재가 들어서 집도 못 사고, 벌이할 운도 못 되고, 또 이사 갈 운도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아니, 부처님 법이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말을 곧이듣는 당신도 그르지만 그렇게 일러 주는 그분도 그릅니다. 그런데 그분도 모르니까 그러겠지, 알면 그럴 리가 없죠. 당신도 또 모르니까 그걸 곧이듣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지, 알면 그거 들으러 갈 것도 없고 또 듣고 그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듣고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가려면 그냥 가는 것이 법이요, 내가 집을 살 처지가 된다면 집을 그냥 사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 법이지, 그거를 부처님께서 진실하게 가르쳐 주셨지, 무슨 이사를 가면 나쁘다 좋다, 내년이 나쁘고 올해가 좋고 또, 삼재가 들었고, 삼재가 도대체 뭐 말라빠져 죽은 게 삼재입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삼재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삼재가 들면 그렇게 나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한생각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올해 삼재가 들어서 누구든지 죽는다고 그러던데 몸이 지금 아픕니다." 하고요. 내가 그래도 몸이 건강했는데 아, 그거 보고 와서 삼재가 들었다고 그러는 해에 얼마 안 돼서부터 병이 들어서 이렇게 아프니 이걸 어떡했으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백 일을 기도를 드리고 또 백 일을 드리고 또 백 일을 드려야만 삼재를 면한다고 했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자 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분이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니깐 그렇겠지." 하고 역시 그 보살님한테 그랬습니다. 삼재가 따로 있고 삼재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하기에 "보살님, 죽지 않으면 되고 병 앓지 않으면 돼. 그리고 이사를 가도 일요일날 식구가 다 모여서 아주 편안하게 먹을 거라도 지어 가지고 이러고 놀러 가는 것처럼 이사를 가라." 그랬어요. 아니, 왜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이 좋다고 해서 남자들도 하나도 없을 때 고생을 합니까? 내 마음의 부처가, 모든 부처가, 이 세상의 모든 일체 만생 만물이 다 내 한마음에 들어 있다면 구태여 어디 걸릴 게 있느냐. 그러니 내가 가는 날이 너무나 좋은 날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내가 오늘 가면 좋겠다 하면 그 날이 좋은 날이다. 뭐든지 걸리지 말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그 소리 듣고요, 사흘도 못 돼서 병이 나았어요. 병도 나았거니와 그 해에 얼마나 장사가 잘됐는지 말입니다, 삼재가 들어서 죽기는커녕 장사가 잘돼서 아주 고맙다고 시주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자기를 바로 그 속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 보살님도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마음이 벗어나면 육신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허이구, 살기도 바

☞22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지사모집 안내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1) 모집 지역 (세부지역은 별도협의)

- 강원 : 남부 – 원주,정선,영월,평창 일원, 북부 – 춘천,철원,양구,화천,홍천 일원
- 경기 : 남부 – 안산,화성,용인,안성 일원, 북부 – 포천,연천,동두천,파주 일원
- 대전 : 전지역
- 충남 : 서산,아산,당진,예산,청양,보령 일원
- 경남 : 마산,창원
- 전남북 : 광주지역/나주,목포/순천,여수/전주,익산 일원
- 제주도 전지역

2) 포교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추천서(스님/단체장),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사진 2매
- 제출기한 : 2007년 4월 30일(월)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30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 이동격 차장
- 전화 : 02)2004-8214 / 팩스: 02)737-0696 / 이메일 jabi1522@empal.com

현대불교신문사

소주천小周天 2기 모집

무너지지 않는 금강삼매로 지혜의 빛을 밝히고,
몸과 마음을 닦아 생명의 대도로 들어가시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삼매가 없고, 삼매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지혜와 삼매가 있는 사람은 진실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법구경法句經Dhammapada』

대승회 내공법內功法은 유불선의 장점을 융합한 것입니다. 대승경전大乘經典과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법을 근간으로 하며, 전진도全眞道 남종의 금단대도金丹大道의 하품단법을 아울러 닦아 갑니다. 무원無願 · 무상無常 · 공空의 삼삼매三三昧를 이루어 완전한 지혜(반야般若)를 밝히는 길입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본성本性을 깨달아, 생명의 기운을 그러모아, 대도大道로 들아가며, 정신을 기울지 않게 하여 해탈解脫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혜쌍수定慧雙修는 성명쌍수性命雙修를 내포합니다. 혜慧는 성性을 밝히는 것이고, 정定은 명命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승회의 수행은 먼저 정定과 명命을 닦고, 연후에 혜慧와 성性을 닦아 밝혀나갑니다. 처음에는 명공命功에 더 중점을 두고 수련하여 선천先天의 명을 다소 회복하고, 무너지지 않는 삼매의 기반을 이루고, 상승내공으로 갈수록 성공性功에 중점을 두어 깨달음을 열어갑니다.

공개강좌 무료 시공施功 있습니다

무료 공개 강좌	2007. 4. 25(수), 26(목) 오후 7:00~9:00 인사말, 소주천 과정 소개(1시간) / 시공(1시간)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개강	2007. 5월 中
과정	12개월(주 1회) / 도덕보장, 금강경, 유불선 경전

치유명상 무료 과정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간이簡易한 길이 있습니다.

쉽고 효과가 빠릅니다
(종교신앙과 관계 없습니다)

효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여 호르몬 분비와 기혈 순환이 조절됩니다. *면역기능과 장기의 기능이 강화되어 건강한 체질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중풍, 만성질환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이 완화됩니다.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일시	2007. 3. 12~5. 31(수시 접수)
시간	오전반 10:00~11:00 월~금 오후반 15:00~16:00 월~토 저녁반 19:30~20:30 수, 목
과정	도인법 /소림오법, 오음곡 /108식 호흡 유불선 경전 강독

*진도와 무관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대승회 지유와 나눔
www.themahayana.org
대승회는 유불선을 아울러 배우고 수행하는 치유와 나눔의 모임입니다

내공명상센터 Tel. 02-538-7108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16 충암B/D 6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6번 출구)